

닛신보-해외 생산거점을 강화

일본 면방업계에서는 비교적 해외진출을 늦게 시작한 닛신보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니까와 텍스타일」에 직기 34대를 증설함으로써 제직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 섬유산업에서 중국은 중요한 생산거점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상주명력(常州名力) 방직의 주식을 사들여, 앞으로는 코듀로이 등의 캐주얼 소재와 스트레치 소재의 거점으로 키우기로 하고, 스트레치 소재는 일본으로부터 스판덱스 「모빌론」을 공급 받아 코어 스판얀을 생산하였다.

항주일면(杭州一綿)은 주식의 3분의 1을 사들여 침장(寢裝), 베드 시츠 등의 홈텍스타일과 니트의 거점으로 하기 위하여 편성기 15대와 월산 100톤의 가공기를 일본으로부터 이설(移設)할 것을 계획중이다.

닛신보는 이들 두 회사뿐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생산거점을 중국에 확보하려는 계획이 머지않아 성사될 것이라고 한다.